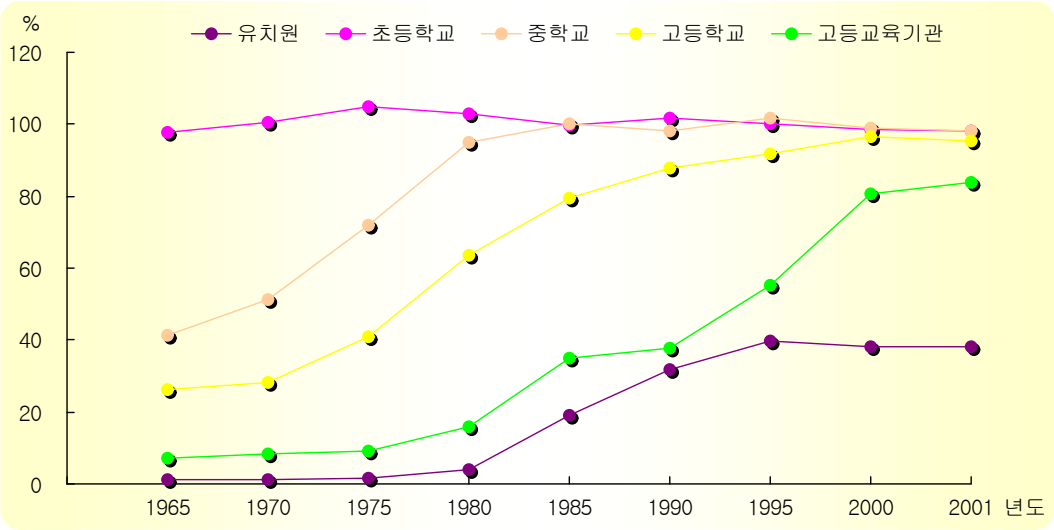
1 취학률



(단위 : %)

연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1.0	1.0	97.7	111.8	41.4	30.5	26.4	18.1	7.2	3.8
1970	1.3	1.2	100.7	100.2	51.2	40.6	28.1	21.6	8.4	4.5
1975	1.7	1.6	105.0	105.3	71.9	63.1	41.0	32.5	9.3	5.4
1980	4.1	3.9	102.9	103.7	95.1	92.5	63.5	56.2	15.9	8.1
1985	18.9	18.5	99.9	100.1	100.1	99.6	79.5	75.5	35.1	21.6
1990	31.6	31.4	101.7	102.2	98.2	98.5	88.0	85.4	37.7	24.5
1995	39.9	39.9	100.1	100.3	101.6	101.8	91.8	91.3	55.1	50.2
2000	38.1	38.3	98.5	99.1	99.1	99.1	96.4	95.9	80.5	77.0
2001	38.1	38.5	98.2	98.7	98.0	98.1	95.3	95.0	83.7	63.4

주: 1) 취학률 = 학생수 / 취학 적령인구 × 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교가 포함됨.
3) 유치원 취원률은 4,5세 기준임.

일반 현황 분석

취학률은 취학 적령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의 교육기회 수준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4,5세를 기준으로 볼 때 1970년 1.3%, 1990년 31.6%, 2001년 38.1%에 이르고 있다. 여아의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1970년 1.2%에서 1985년 18.5%, 2001년 38.5%로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5년에 이미 97.7%에 이르러 완전 취학 상태에 있고, 2001년에 98.2%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 51.2%에 불과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 100.1%로 완전 취학상태에 이르렀고 2001년에는 98.0%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8.1%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 63.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95년 이후에는 90%를 넘는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이전에는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1980년에 15.9%, 1985년 35.1%, 1995년 55.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83.7%의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95년에 와서야 50%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63.4%로 나타나고 있다.

변동요인 분석

우리 나라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반세기 정도의 학교 교육 역사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사실상 국민 공통 교육이 되도록 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취학률도 세계 정상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양적 규모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의 질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수 1인당 학생수 과다 등의 여건 악화를 감수하면서 팽창을 도모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또 그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취학률 증가가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